

성령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본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티의 설교 비교

한 지 희*

국문 초록

한국교회의 설교 위기는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오해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이 위기를 *per verbum*, *sine verbo*, *cum verbo*의 분류 틀로 분석하며, Martyn Lloyd-Jones와 John Stott의 설교 모델을 비교한다. Lloyd-Jones는 설교를 성령이 능력으로 말씀을 실현하는 변혁적 사건으로 보아 동적 변화를 강조하나, 개인주의적 한계를 보인다. 반면 Stott는 말씀을 해석·적용하는 공적 행위로 이해하나, 설명적 축소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cum verbo*의 통합적 관점에서 설교를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적 통일로 재구성하며, 개인 변화를 넘어 공동체 형성과 창조 질서 회복으로 확장된 공적 증언으로 제안한다. 이는 한국교회가 삼위일체적 설교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주제어: 설교학, Martyn Lloyd-Jones, John Stott, 말씀과 성령, 통합적 설교, 공공신학.

• 논문 접수일: 2026년 4월 5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4월 26일

• 논문 심사일: 2026년 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4월 28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Ph.D

I. 들어가는 글 : 성령 없는 말씀? 말씀 없는 성령?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흔히 “말씀 없는 성령”과 “성령 없는 말씀”이라는 두 경향 사이에서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¹⁾ 한편에서는 개인적 체험과 즉각적 영감을 설교의 권위 근거로 강조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²⁾ 다른 한편에서는 설교를 성경 본문의 해설과 교리 전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³⁾ 이러한 흐름은 각각 설교의 한 측면을 강조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나, 특정 신학적 전통이나 설교자를 단순히 열광주의나 합리주의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의 설교 이해를 이런 범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들의 신학적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설교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 설교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드러낸다.

교회사적으로도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규범성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⁴⁾ 성령의 직접적 체험을 강조하는 흐름은 설교를 개인적 경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낳았고, 말씀의 객관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흐름은 설교를 해석과 전달 중심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⁵⁾ 이런 흐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균형을 잃을 때 설교는 왜곡될 수 있다. 성령이 말씀과 분리될 때 설교는 주관적 체험에 의존하게 되고, 반대로 말씀이 성령의 현재적 역사와 분리될 때 설교는 생명력을 상실한 전달 행위로 축소될

1) 박태현, “윌리엄 퍼킨스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70 (2024): 215–263. (<https://doi.org/10.25309/kept.2024.02.20.215>)

2)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홍종락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5–18.

3)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 생명의샘, 2023), 160.

4) Sinclair B. Ferguson, 『성령』,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00), 43–47.

5) Jaroslav Pelikan, 『기독교 전통 4』, 김재진 옮김 (서울: 은성, 2003), 120–135.

위험을 갖는다.⁶⁾ 따라서 설교의 핵심 문제는 어느 한쪽의 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형성된 *per verbum, sine verbo, cum verbo*의 구분을 해석학적 틀로 활용한다.⁷⁾ 특히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cum verbo*의 관점은 설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라는 두 대표적인 개혁주의 설교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동일한 성령론적 기초 위에서 있으면서도, 설교의 방식과 형태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⁸⁾

여기서 분명하게 전제할 것은, 본 논문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의 설교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

6) 박태현, “포스트모던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77권 (2025), 67–68. (<https://doi.org/10.25309/kept.2025.11.15.066>)

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er verbum, sine verbo, cum verbo*의 삼분법은 종교개혁기 1차 문헌에 명시적으로 정식화된 고정 범주라기보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후대 교회사 및 조직신학 연구에서 형성된 해석학적 분류틀이다. 이 정식들은 특정 전통이나 집단을 본질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규범적 표지가 아니라, 설교와 성령이 해가 어떠한 신학적 구조 위에서 조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sine verbo*는 16–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문헌에서 영성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per verbum*과 *cum verbo* 역시 루터파 및 개혁파 전통이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신학적 언어이다. 따라서 이 삼분법은 역사적 실체를 고정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체계라기보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olfram Kinzig, “Word and Spirit in the History of Doctrin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5 (2004): 1–18; Jaroslav Pelikan, 『기독교 전통 4』, 김재진 옮김 (서울: 은성, 2003), 120–135; Heinrich Heppe, 『개혁교의학』, 김재진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534–536; C. Trimp, *Klank en Weerklank*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69), 19–21.

8) 이현웅,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의 설교론과 현대 설교학적 과제,” *신학논단* 64 (2011): 139–174.

히려 두 설교자는 동일한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성령의 우선성과 역동성에 대한 강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라는 동일한 신학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성 안에서 이들은 설교의 형식과 방향성에 있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로이드 존스의 경우 설교를 매우 작은 단위로 세밀하게 전개해 나가는 현미경식 관찰(microscopic preaching)의 형식을 취하며, 성령의 현재적 역사 속에서 말씀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형식은 본문의 의미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교의 흐름 속에서 청중이 점진적으로 설득되고 결단에 이르도록 이끄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그의 로마서 강해 설교나 사도행전 설교에서 확인되듯이, 본문의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성령의 역동성 속에서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설교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⁹⁾

반면 존 스토틀트는 설교를 보다 큰 단위의 문단 구조 안에서 전개하며,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대 청중의 삶에 연결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는 이른바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놓기’라는 설교 원리를 통해, 성경 본문의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의 간극을 해석학적으로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형식은 그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나 기타 저서에서 제시된 설교 원리 속에서 잘 드러난

9)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복음과 실천신학』, 2006. 19-61 ; Martyn Lloyd-Jones, 『사도행전 강해』(행 1:8 설교) 및 『로마서 강해』 참조. 예컨대 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는 본문을 반복적으로 확장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교는 동일 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층적으로 전개하며 청중을 설득과 결단으로 이끄는 현미경식 설교 형식을 보여준다.

10)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에베소서 강해」 참조; 이정훈, 「존 스토틀트의 설교원리와 다리놓기 이론의 활용방안」, 2010,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예를 들어 스토틀트는 에베소서 설교에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주해한 후 “그러므로 너희

다.¹⁰⁾

그러나 본 논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러한 설교 방법론 자체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론적 관점 안에서 각각의 설교 형식과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현되는지를 신학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설교자의 설교 이해를 살펴보고, 그 강점과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성령론적 설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설교를 성령과 말씀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 변화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설교의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설교 이해를 어떻게 구조화하며, 이 구조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의 설교 모델 속에서 각각 어떻게 구현되는가? 나아가 이 두 모델은 상호배타적 대안이 아니라 어떠한 통합적 설교 이해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사전적 고찰로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교회사와 신학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설교 이해의 신학적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후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의 설교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는...”과 같은 적용 단락으로 나아가며, 교회의 삶과 사회적 책임에 연결시키는 강해 설교 구조를 취한다. 이는 본문과 청중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기(bridge-building)’ 형식을 잘 보여준다.

II. 펴는 글

1.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신학적 전제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리사적으로 이 관계는 흔히 *per verbum, sine verbo, cum verbo*라는 세 범주로 요약되어 왔으며, 이 범주들은 각각 설교가 무엇에 의해 가능해지는지를 상이하게 규정한다. 이 세 정식은 특정 전통을 단순히 분류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라, 설교가 ‘성경의 규범성’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드러내는 해석학적 틀로 이해되어야 한다.¹¹⁾

먼저 *per verbum*(말씀을 통하여)는 루터파 전통에서 발전한 정식으로, 성령이 오직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성경의 객관적 권위와 설교의 공적 성격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²⁾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 전통은 설교와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주요 수단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교를 교회의 공적 행위로 정초하였다. 그러나 이 정식이 극단화될 경우, 설교는 성령의 현재적 사역과 분리된 채 본문의 의미 전달과 교리 설명으로 환원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때 설교는 성령의 역동적 임재를 기대하는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정보 전달이나 윤리적 훈계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근대 이후 합리주의적 설교 이해와 결합되면서 설교의 예배적 성격과 변혁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¹³⁾

11) David Buttrick, 『설교학』, 정장복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2-35.

12) Martin Luther, 『의지의 속박』,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0.

13) John Webster, 『성경: 교의학적 소모』,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5), 87-90.

둘째, *sine verbo*(말씀 없이)는 재세례파와 다양한 영성주의 전통에서 나타난 정식으로, 성령의 직접적 계시와 내적 음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성령의 자유와 주권을 강조하며 제도화된 교회와 형식화된 신앙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¹⁴⁾ 그러나 이 정식이 극단화 될 경우 설교는 정경의 규범성으로부터 이탈하여 주관적 체험과 개인적 영감에 의존하는 신비주의로 기울 위험을 갖는다. 여기서 문제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이 정경적 분별과 공동체적 검증으로부터 분리될 때 발생한다.¹⁵⁾ 여기서는 성령의 역동성이 살아 있는 경험적 설교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엘 비키가 강조하듯 개혁파 영성은 교리와 경건, 진리와 경험의 결합을 본질로 한다는 점을 긍정한다. 다만 그러한 경험은 언제나 말씀의 규범성 안에서 분별되어야 한다.¹⁶⁾

셋째, *cum verbo*(말씀과 더불어)는 개혁파 전통에서 발전한 정식으로,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되 말씀 밖에서 임의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균형적 구조를 보여준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성령은 설교자의 해석과 선포를 무력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내적 원리이다. 말씀은 성령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생산하지 않으며, 성령은 말씀 없이 임의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부가하지 않는다. 설교는 바로 이 둘의 결합 안에서 교회의 공적 행위로 성립한다.¹⁷⁾ 이런 이해는 말씀과 성령을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서로를 전제하며 함께 작동하는 관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14) Jaroslav Pelikan, 『기독교 전통 4: 교회와 교리의 개혁 1300-1700』, 김재진 옮김 (서울: 은성, 2003), 120-135.

15) Gordon T. Smith, 『예수의 음성』, 김동주 옮김 (서울: IVP, 2010), 45-52.

16)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홍종락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5-18.

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 김종흡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1/9.1: III/1.1.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이 삼분법은 단순한 교리사적 분류표가 아니라, 이후 두 설교자의 설교 이해를 사건성과 정경성의 축 위에서 비교하고 통합적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해석학적 좌표계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이 범주들은 설교 전통을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척도라기보다, 설교가 말씀의 규범성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사이에서 어떠한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교는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중 구조를 지닌다. 설교는 정경의 규범성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아래 존재한다. 이 구조가 무너질 때 설교는 합리주의적 전달 행위나 주관적 체험주의라는 두 병리 가운데 하나로 기울게 된다. 따라서 설교의 신학적 전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설교는 말씀의 규범성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구조는 실제 설교 이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계속해서 현대 복음주의 설교자의 두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적 설교 이해: 설교의 사건성과 권능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 이해는 무엇보다 “설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급진적 재정의(再定義)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설교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종교적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다. 이 사건성은 설교의 부차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이며, 설교는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예배적 성격을 지닌다.¹⁸⁾

18) 박태현, “로이드 존스의 전도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58권 (2021), 75-76.
(<https://doi.org/10.25309/kept.2021.2.15.115>)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면서도, 그 도구됨이 단순한 기술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으로 옷 입음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¹⁹⁾ 그가 말하는 이 능력은 사도행전 1:8과 고린도전서 2:4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감정의 고양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임재를 가리킨다.²⁰⁾

이런 이해는 설교를 기술화·전문화하는 근대 이후의 설교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기능한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 준비의 중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으나, 준비된 원고와 정교한 구조만으로는 설교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교는 언제나 성령의 현재적 역사에 의존하며, 설교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사모할 수 있을 뿐이다.²¹⁾ 이 점에서 그의 설교 신학은 설교를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다시 정리시킨다.

설교자는 말하는 자이기보다 말하게 되는 자이며, 설교는 인간의 언어 행위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언어를 통과하여 드러나는 시간이다. 따라서 설교자의 권위는 자기 현현이 아니라 자기 소멸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며, 설교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매개자이다.²²⁾

이는 설교를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다시 이해시킨다. 동시에 이 사건성은 설교자의 심리적 상태나 주관적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말씀의 객관적 규범성의 결합

19) Martyn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9-15.

20) 사도행전 1:8; 고린도전서 2:4.

21) Martyn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325-330.

22) Sinclair B. Ferguson, 『성령』,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00), 104-108.

속에서만 성립한다.²³⁾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말씀 없는 성령’과 ‘성령 없는 말씀’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신학적 구조를 요청받는다. 설교는 성령의 현재적 역사 안에서 말씀의 의미가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며, 동시에 말씀의 규범성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별되고 검증되는 공적 행위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설교는 개별 차원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복합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예배 장면 안에서 동시적으로 중첩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계시 사건에 참여하고, 회중은 동일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로 재형성되며, 나아가 이 설교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는 종말론적 사명을 내포한다.

로이드 존스는 매개자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신실한 설교자들의 사역을 통해 설교의 본질적 능력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 능력이란 단지 개인의 감정변화나 도덕적 결단에 그치지 않고, 개인을 교회의 공동체적 삶으로 인도하며,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현재 안에서 표지와 예표로서 세계와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종말론적 역동성이다.²⁴⁾

로이드 존스가 강조한 성령세례는 오순절주의적 은사 체험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그는 이를 사도행전적 반복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위

23) 박태현,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신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62권 (2022), 112–113. (<https://doi.org/10.25309/kept.2022.2.15.112>)

24)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김기철 옮김 (서울: IVP, 2006), 222–225.

한 특별한 능력의 부여로 이해하였다.²⁵⁾ 이 점에서 그의 이해는 은사주의적 재현주의가 아니라 개혁파적 능력 이해의 변주로 위치된다. 그의 관심은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권능과 복음 선포의 실효성에 있었다.²⁶⁾

이 사건성 중심 이해는 설교의 변혁성과 기대를 회복시킨다. 설교는 회중의 인지 구조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행위이며, 회개, 위로, 소명, 공동체적 변화는 이 사건의 열매로 이해된다. 설교는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사건성 중심의 설교 이해는 로이드 존스의 실제 설교 사역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특정 성경 본문을 단회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동일한 본문을 반복적으로 강해하며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심화 시키는 설교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같은 본문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교하며, 본문의 논리와 구속사적 흐름을 세밀하게 해부하듯 전개하였다. 이러한 설교 방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권능 아래에서 동일한 말씀이 매 설교마다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그의 신학적 확신에 기초한다. 특히 로마서 6장과 같은 본문은 죄와 은혜, 연합과 성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며, 성도의 존재론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설교로 전개되었다.²⁷⁾ 이 과정에서 설교는 단순한 해석 전달이 아니라, 회중이 말씀 안에서 실제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건으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그의 설교는 일회적 정보 전달이 아니라, 동일한

25) Martyn Lloyd-Jones, 『성령세례』, 정원태 옮김 (서울: CLC, 1998), 10-18.

26) J. I. Packer, 『성령과 함께 걷기』, 김동주 옮김 (서울: IVP, 2003), 44-47.

27) Martyn Lloyd-Jones, 『로마서 강해 2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서문강 옮김, (서울: CLC, 2004), 225.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지속적 사건”의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적·집중적 강해 설교는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재적 행위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설교가 한 번의 메시지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결합 속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는 사건임을 드러낸다.

이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모델은 설교의 예배적 성격과 영적 강조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공헌을 한다. 특히 설교가 플랫폼화되고 전달력이 콘텐츠 경쟁력으로 전환된 현대 설교 문화 속에서, 그의 신학은 설교를 다시 하나님의 행위로 위치시키는 신학적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 모델은 구조적 위험 또한 내포한다. 첫째, 사건성의 강조는 설교의 공적 검증 가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설교의 권위가 본문보다 경험의 강도, 감동의 깊이, 회중의 반응에 의해 평가될 경우, 설교는 정경적 규범성 보다 주관적 체험에 의해 정당화되기 쉽다. 둘째, 성령의 권능이 설교자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될 때, 설교자는 의도하지 않게 카리스마적 권위를 축적하게 되고, 설교는 공동체적 분별보다 개인적 영성에 의존하게 될 위험을 갖는다.²⁹⁾

로이드 존스 자신은 이 위험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견지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델이 단순히 “능력 있는 설교”로 소비될 때, 사건성은 정경성과 분리되어 주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의 설교 이해는 사건성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헌을 가지는 동시에, 정경성과의 구조적 균형감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28) James K. A. Smith,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0), 23-26.

29) Sinclair B. Ferguson, 『성령』,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00), 104-108.

요컨대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알고,³⁰⁾ 로이드 존스의 설교 이해는 설교를 다시 하나님의 행위로 위치시키고, 설교의 예배적·변혁적 사건성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성이 정경적 규범성과 구조적으로 결속되지 않을 경우, 설교는 주관화 되거나 설교자의 영적 카리스마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건성”과 “정경성”이라는 개념은 특정 신학자의 용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이해하는 두 가지 신학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이다. 사건성은 설교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교리 해설을 넘어, 성령의 현재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발생하고 작용하는 계시 사건이라는 이해를 가리킨다. 이는 설교를 인간의 언어 행위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신학적 시도이다.

반면 정경성은 설교가 성경이라는 정경의 규범성과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해석과 선포의 공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설교는 설교자의 개인적 통찰이나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경에 근거한 해석과 공동체적 검증 가능성 속에서 성립하는 교회의 공적 사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성령의 사역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이해를 밝히고 확신에 이르게 한다는 존 칼빈의 통찰과 맞닿아 있다. 칼빈에 따르면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고 확신에 이르게 하신다.³¹⁾ 이러한 전통은

30)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박규태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05), 307.

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 김종흡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1.7.4-5; 1.9.1.

이후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는데, 바빙크는 성령이 새로운 계시를 부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도록 조명하는 내적 원리로 역사하신다고 설명한다.³²⁾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은 싱클레어 B. 퍼거슨에 이르러 더욱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교화된다. 퍼거슨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과의 분리 속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신자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으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이해하며, 성령의 조명은 단순한 인지적 이해를 넘어 존재론적 변화를 동반하는 사건임을 강조한다.³³⁾

이 두 범주는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라는 cum verbo의 구조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설교의 두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사건성이 설교의 현재성과 변혁성을 강조한다면, 정경성은 설교의 규범성과 공공성을 보존한다.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이 둘 중 하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두 차원의 긴장과 결합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3. 존 스토틀의 성령론적 설교 이해: 설교의 정경성과 성령의 조명

존 스토틀의 설교 이해는 설교를 무엇보다도 정경의 의미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이해되고 순종되게 하는 해석학적 행위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설교를 “두 세계 사이에서 수행되는 사역(bridge-building)”으로 이해하며,³⁴⁾ 설교자의 소명을 성경 본문의 세계와 현대 청중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놓기로 표현하였다.

이 관점에서 설교의 핵심은 사건의 발생이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32)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1』, 김영규 외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584-590.

33) Sinclair B. Ferguson, 『성령』,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00), 101-110.

이 아니라, 정경의 의미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공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 자체이다. 스토틀은 성령의 사역을 이 해석학적 과정과 밀접히 결속시킨다. 성령은 설교자를 대신하여 말하지 않으며, 새로운 계시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성령은 설교자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청중에게 적실하게 적용하도록 조명하고 인도하신다.³⁵⁾

이 조명은 단순한 인지적 명료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청중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적 사역이다.³⁶⁾ 성령은 본문 밖의 권위가 아니라, 본문의 권위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설교의 공적 책임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화한다. 설교는 설교자의 순간적 감흥이나 회중의 즉각적 반응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본문의 의미에 대한 충실성, 논증의 정당성, 적용의 적실성에 의해 평가된다. 설교자는 성령의 도구이되, 해석과 판단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³⁷⁾ 이 구조는 설교를 교회의 공적 행위로 보존하며, 설교를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공적 담론으로 위치시킨다.

이 점에서 스토틀의 모델은 설교의 주관화와 카리스마화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설교는 특정 설교자의 영적 깊이나 전달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경이라는 공통 규범 아래 놓인다. 이는 설교를 공동체적 분별과 책임의 영역 안에 위치시키며, 설교의 권위를 개인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이동시킨다.

이 같은 정경성과 조명 중심의 설교 이해는 존 스토틀의 실제 강해

35)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옮김 (서울: 생명의샘, 2023), 137-145.

36) Alister McGrath, 『기독교 신학의 이해』, 김재진 옮김 (서울: IVP, 2004), 391-395.

37) Kevin J. Vanhoozer, 『교리의 드라마』, 김진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88-92.

설교 사역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는 설교를 단순한 본문 설명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오늘의 청중에게 연결하는 해석학적 구조로 전개하였다. 특히 사도행전과 로마서 강해에서 그는 본문의 역사적·문맥적 의미를 충실히 해석한 후, 이를 현대 교회의 상황과 윤리적 책임 속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단순히 성령 강림의 사건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그 사건이 교회의 형성과 공동체적 삶, 그리고 복음의 공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석하였다.³⁸⁾ 또한 로마서 12장을 다룰 때에는 교리적 진술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³⁹⁾

이와 같은 설교 방식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청중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다리 놓기”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준다. 설교는 본문에서 시작하여 청중의 삶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해된 말씀이 실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된다. 이 점에서 스토트의 설교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해와 적용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공적 해석 행위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모델 또한 구조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될 위험을 내포한다. 해석학적 절차가 강조되는 만큼, 설교는 사건으로 경험되기보다 설명으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 성령의 임재와 변혁성은 전제되지만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설교는 청중을 붙드는 사건이기보다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교육 문화와 결합될 때, 설교는 영적 기대보다는 인지적 만족을 제공하는 강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38) 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19), 83-125.

39) John Stott, 『로마서 강해』,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20), 505-530.

따라서 스토트의 설교 이해는 정경성과 계시의 객관성이라는 중요한 공헌을 가지는 동시에, 사건성과의 긴장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의 모델은 설교를 교회의 책임 있는 행위로 보존하지만, 그 기여는 로이드 존스가 강조한 사건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설교의 전인적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스토트의 설교 이해는 설교를 단순한 해석 행위에 머물지 않게 한다. 그는 설교가 교회의 공적 삶과 윤리를 형성하는 중심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설교를 통해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요청한다. 이 점에서 그의 설교 이해는 설교의 공공성과 선교적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결국 이 두 모델은 서로를 배제하는 대안이 아니라, 설교 신학이 감당해야 할 구조적 초점의 서로 다른 강조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⁰⁾ 이 부분은 단순히 이론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담론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공적 증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사건성 없는 설교는 세계를 변혁하지 못하고, 정경성 없는 설교는 세계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교는 말씀과 성령의 결합 속에서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현실을 현재 가운데 증언하는 공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요컨대 스토트의 설교 이해는 설교를 교회의 공적 해석 행위로 보존하며 설교의 정경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 정경성이 사건성과 구조적으로 결속되지 않을 경우, 설교는 해석적 설명이나 종교적 교육으로 환원될 위험을 내포한다.

설교는 교회 내부의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공적 사건으로서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설교의

40)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김기철 옮김 (서울: IVP, 2006), 222-225.

위기는 단지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증언이 약화된 신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4. 공통점과 차이, 강점과 한계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복음주의 정통 전통 안에서 있으며,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개혁주의적 말씀—성령 이해의 기반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모두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중심성을 설교의 기초로 삼으며, 설교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심 수단으로 이해한다. 또한 설교자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선포자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설교 모델은 각각 뚜렷한 한계를 내포한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 이해는 성령의 권능과 사건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가지지만, 그 핵심 개념인 ‘성령세례’는 신학적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본래 설교를 위한 능력 부여라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가능한 체험이나 특정 영적 상태로 오해될 여지를 남긴다. 또한 사건성의 강조는 설교의 평가 기준을 회중의 반응이나 경험의 강도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설교가 정경적 규범성보다 체험적 요소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을 낳는다. 더 나아가 그의 설교는 개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데 제한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존 스토트의 설교는 정경성과 해석의 명료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해석과 설명 중심으로 흐를 경우 설교가 사건으로 경험되기보다 이해의 과정으로 환원될 위험을 지닌다. 특히

그의 설교는 적용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용이 있는 설교”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며, 청중을 실제 변화로 이끌어가는 “적용을 향해 나아가는 설교”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경우 설교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존재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할 위험을 갖는다.

따라서 두 설교 모델은 각각 중요한 신학적 공헌과 함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며, 이와 같은 한계는 설교 이해를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구조적 차이는 오늘의 설교 현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 교회의 설교는 종종 두 대척점 사이에서 분열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에는 교리적 정확성과 본문 충실성을 강조하지만 회중의 실제 삶과 영적 경험과의 접촉에는 실패하는 유형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강조하지만 성경 본문의 규범성과 해석적 책임이 약화되는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극화는 각각 “열정 없는 빛”과 “빛 없는 열정”이라는 병리적 형태로 나타난다.⁴¹⁾

로이드 존스는 사건성을 전면에 배치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발생하는 사건이며, 본문 해석은 이 사건을 준비하는 수단이다. 로이드 존스는 특히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설교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과정에서 성령세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이를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설교와 사역을 위한 능력 부여의 사건으로 재정립 하였다. 이로 인해 그의 입장이 오순절적 체험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으나, 그는 성령세례를 중생 이후 반복적으로 추구되는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특

41) 박태현, “윌리엄 퍼킨스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70 (2024), 220-221. (<https://doi.org/10.25309/kept.2024.02.20.215>)

별한 능력부여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의 성령 이해는 오순절 운동과 동일선상에 놓이기보다, 말씀중심의 개혁주의신학 안에서 성령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설교에서는 현미경식 설교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본문의 한 단어나 구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반복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진리를 재진술함으로써 청중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그 진리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층적 전개는 설교를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현재적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핵심 형식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그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한 설교에서 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할 사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동일본문을 반복적으로 확장하면서 성령의 임재, 권능,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통해 청중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그 말씀 앞에서 도록 이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교는 설교 자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경험되도록 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반면 스토트는 정경성을 전면에 배치한다. 설교는 정경의 의미가 현재화되는 해석 사건이며, 성령의 사역은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조건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의 구조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구조적 배열의 차이이다. 스토트의 설교 방법론은 강해설교를 중심으로한 해석학적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 그는 설교를 성경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고 이를 현대 청중의 삶에 적용하는 공적 행위로 이해하며, 본문 주해와 적용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강조한다. 특히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놓기’라는 개념을 통해, 성경 본문

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먼저 명확히한 후 이를 현대사회와 교회의 상황에 연결하는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러한 설교형식은 그의 에베소서강해 설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본문으로한 설교에서 그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전적인 은혜성을 먼저 해석학적으로 정리한 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이 삶의 변화와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본문 주해에서 출발하여 적용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성경본문과 오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놓기’ 설교의 전형적인 형식을 제시한다.

이런 배열의 차이는 설교의 기능과 평가 기준을 다르게 형성한다. 로이드 존스의 모델에서는 설교는 회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의해 평가 된다. 반면 스토트의 모델에서는 설교는 무엇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성령론적 설교는 이 두 모델의 단순한 병치나 절충을 넘어서야 한다. 설교는 성령과 말씀의 균형 위에서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넘어, 공동체의 형성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설교가 교회 내부의 신앙 형성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신학의 지평 위에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주적 비전은 성경 자체의 증언에 근거한다. 특히 데이비드 드실바는 신약성경의 구속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비전임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개인의 구출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 한다.”⁴²⁾

이런 관점에서 설교는 단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사건성과 정경성의 균형 위에서, 개인에서 공동체를 거쳐 전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⁴³⁾ 이 같은 설교만이 오늘날 교회와 세계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⁴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의 설교 이해는 동일한 개혁신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있으면서도, 설교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의 배치와 강조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에 관한 신학적 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들은 동일한 개혁신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사건성과 정경성이라는 요소를 각각 강조함으로써, 말씀과 성령의 결합 속에서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을 단순히 상보적 관점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말씀의 객관적 규범성과 성령의 주관적 적용이 동시에 요청되는 구조를 갖는다. 말씀 없는 성령은 계시의 기준을 상실하게 만들고, 성령 없는 말씀은 계시의 현재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설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결합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건성과 정경성의 통합은 신학적 절충이

42) David A. deSilva. 『바울 복음의 심장: 개인, 교회, 창조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오광만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9), 33-38.

43)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7권 (2013), 335-336.

44)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홍종락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5-18.

아니라 계시론적 필연성에 해당한다.

5. 성령론적 설교의 통합

코로나 이후 교회는 예배의 현장성과 공동체성을 다시 질문받고 있으며, 동시에 AI 시대의 도래는 설교를 정보 전달이나 콘텐츠 생산의 한 형태로 오해하게 만드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교는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연설이나 설명의 기술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오늘의 강단은 말씀의 규범성과 성령의 현재적 역사 사이의 내적 결속을 회복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해 온 *cum verbo*의 구조는 결정적인 신학적 방향을 제시한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설교는 그 결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 되고, 교회를 형성하며, 나아가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수직적, 수평적, 우주적 차원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수직적 차원에서 설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다. 설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행위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궁극적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설교자는 그 말씀의 도구로 부름 받은 자이다. 이때 설교는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 일어나는 계시 사건이며, 성도는 그 안에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설교의 권위가 인간의 전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⁴⁵⁾ 이러한 통찰은 AI가 정보를 생성

45) Martyn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325-330.

하고 전달하는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정보는 전달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라는 사건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직적 차원은 개인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은 설교가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고립된 영성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세계를 향한 책임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수직적 차원은 설교의 출발점이며, 성령과 말씀의 결합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본질적 차원이다.

다음으로 수평적 차원에서 설교는 교회를 형성하는 공동체적 행위이다. 설교는 개인의 감정적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을 형성한다.⁴⁶⁾ 성령은 설교를 통해 공동체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교회는 말씀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몸으로 세워진다. 이 점에서 설교는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실제로 조직하는 신학적 행위이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설교 이후 공동체가 형성되는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며, 에베소서 4장 11-13절 역시 말씀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강조한다. 성령론적 설교는 공동체가 실제로 변화되고 움직이도록 이끄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⁴⁷⁾ 특히 코로나 이후 개인화된 신앙 구조 속에서 설교는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고 함께 순종하는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적 차원에서 설교는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다. 설교는 교회 내부의 종교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46)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운용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5-52.

47)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정인찬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21.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적 행위이다.⁴⁸⁾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를 넘어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포함한다. 한국교회 강단의 중요한 한계는 설교가 성령을 말하면서도 그 사역을 개인적 차원에 제한해 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축소를 넘어설 때 설교는 창조-구속-새창조라는 성경적 흐름 속에서 공공성과 우주적 비전을 드러낼 수 있다.⁴⁹⁾ 신약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창조 전체를 포함하는 통합적 구조를 지니며, 로마서 8장 22절의 피조 세계의 탄식과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만물의 화해는 구속의 범주가 우주 전체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⁵⁰⁾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정의, 평화, 창조 보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포함해야 하며,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⁵¹⁾

결국 성령론적 설교의 통합은 사건성과 정경성을 단순히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cum verbo*의 원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결속을 회복하는 데 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사건이며, 교회를 형성하는 수평적 행위이고, 동시에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우주적 증언이다.⁵²⁾ 이 세 차원이 함께 작동할 때 설교는 오늘의 교회와 세계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령론적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48) 이우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팔복”,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 (2015), 103-104.

49) Jürgen Moltmann, 『희망의 신학』,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16-20.

50) David A. deSilva, 『바울 복음의 심장: 개인, 교회, 창조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오광만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9), 33-38.

51)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웅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신학』 제 72권 (2024), 44-45. (<https://doi.org/10.25309/kept.2024.08.15.044>)

52) Daniela C. Augustine, 『성령은 어떻게 공동선을 증진하는가?』,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4), 52-53.

오늘의 강단은 개인의 위로나 교회의 내부적 형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설교 이해는 단지 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설교 수행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성령론적 설교가 사건성과 정경성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이는 설교의 준비와 선포, 그리고 이후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하나의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준비-선포-분별의 순환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먼저, 설교 준비 단계에서 설교자는 본문을 단순한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형성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정확성뿐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과정이다. 성령론적 설교의 준비는 자료 수집과 구조 설계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와 분별,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영적 태도와 결합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형성되는 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다음으로 설교의 선포 과정에서는 해석된 의미가 단순한 설명으로 머무르지 않고, 회중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이 되도록 언어가 조직되어야 한다.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중이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사건적 언어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설교는 논증과 권면, 설명과 선포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성령의 현재적 역사는 설교를 살아 있는 사건으로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설교는 이해를 넘어 존재를 변화시키는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 이후의 단계에서는 설교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교의 평가는 단순한 반응이나 감정적 만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와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별 과정은 다음 설교 준비로 다시 이어지며, 설교 사역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구조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 구조는 성령론적 설교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교회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통합적 사역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령론적 설교는 말씀의 규범성과 성령의 현재적 역사, 그리고 공동체와 세계를 향한 공적 책임이라는 세 요소의 결합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형성된다.

Ⅲ. 나가는 글

본 연구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오해가 한국교회 설교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켜 왔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말씀의 규범성과 성령의 현재적 역사가 결합된 설교 이해를 제시하였다. 설교의 위기는 단순한 방법론이나 전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분리하거나 왜곡해온 신학적 구조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회복 역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설교를 사건성과 정경성 가운데 하나로 환원해 온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이를 말씀과 성령의 결합이라는 *cum verbo*의 구조 안에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의 설교 이해를 성령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으며, 로이드 존스에게서는 설교의 사건성과 변혁성을, 스토틀에게서는 정경성과 공공적 책임성을 확인하였다. 두 설교자는 동일한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있으나, 설교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의 배열과 강조에 있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성령의 권능과 사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나, 그 강조는 개인의 변화와 체험에 머무를 위험을 내포한다. 반면 스토트의 설교는 정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였으나, 설교를 설명과 적용의 구조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존재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까지 충분히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결국 두 모델은 각각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설교의 최종적 방향을 완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확장될 필요를 남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성령론적 설교는 이 두 모델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결합 속에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 더 나아가 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통합적 설교이다. 본 연구는 이를 수직적 · 수평적 · 우주적 차원이 결합된 통합 구조로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통합이 단지 개념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설교의 준비와 선포,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로 이어지는 수행 구조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성령론적 설교는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사역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살아 있는 신학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설교 이해는 한국교회 설교 현실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설교자는 설교를 성공적인 전달이나 감동의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행되는 예배적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설교 준비가 기술적 구성 이전에 기도와 분별, 그리고 본문 앞에서 자기 형성 과정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설교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공동 정체성과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행위라는 인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셋째, 설교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언어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설교는 교회 내부를 넘어 세계를 향한

공적이며 종말론적인 증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⁵³⁾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설교가 말씀과 성령의 결합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신학적 왜곡의 위험 역시 확인하였다. 설교가 정경의 규범성과 성령의 인도를 함께 담지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설교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담화로 전락하게 되며, 나아가 공동체의 감정이나 특정한 이익을 동원하는 선동으로 변질될 위험을 갖는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한 설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증언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방향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신학적 위기이다.

결국 성령론적 설교의 통합은 사건성과 정경성을 병치하는 기술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결속 안에서 설교를 재구성하는 신학적 과제이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며, 교회를 형성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적 증언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직적 · 수평적 · 우주적 차원이 설교의 준비와 선포,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이라는 수행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설교는 비로소 오늘의 교회와 세계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령론적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단은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를 세우고, 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성령론적 설교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신학의 지평 위에서, 통전적이며 성령론적인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선포될 때, 설교는 교회의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땅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가 다시금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한편, 이러한 통합적 설교 이해가 실제 설교 준비와 수행의 과정 속

53) 이우제, “‘증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72권 (2024), 87-88. (<https://doi.org/10.25309/kept.2024.08.15.087>)

에서 어떻게 보다 구체적인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본문 해석과 설교 구성, 적용의 단계 속에서 사건성과 정경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실천적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성령과 말씀의 결합이라는 신학적 원리가 설교의 실제 형식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태현, “윌리엄 퍼킨스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70 (2024): 215–263. <https://doi.org/10.25309/kept.2024.02.20.215>
- 박태현, “포스트모던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77권 (2025): 66–113. <https://doi.org/10.25309/kept.2025.11.15.066>
- 박태현, “로이드 존스의 전도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58권 (2021): 75–115. <https://doi.org/10.25309/kept.2021.2.15.115>
- 박태현,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신학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62권 (2022): 112–158. <https://doi.org/10.25309/kept.2022.2.15.112>
-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옹변술』에 담긴 설교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신학』 제72권 (2024): 44–86. <https://doi.org/10.25309/kept.2024.08.15.044>
- 이우제, “Sidney Greidanus의 설교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제27권 (2013): 335–367.
- 이우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팔복”, 『복음과 실천신학』 제34권 (2015): 103–150.
- 이우제, “‘증인 모티프’로 본 요한계시록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제72권 (2024), 87–125. <https://doi.org/10.25309/kept.2024.08.15.087>
- 이우제,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제41권 (2016): 169–210.
- 이우제, “로이드 존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 『복음과 실천신학』 제20권 (2006): 19–61.
- 이현웅,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의 설교론과 현대 설교학적 과제,” 신학논단 64 (2011)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1.
- 최홍석, 『교회와 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1.
- D. Martyn Lloyd-Jones, 『성령세례』, 정원태 옮김, 서울: CLC, 1998.
- D. Martyn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 D. Martyn Lloyd-Jones, 『로마서 강해 2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서문강

웁김, 서울: CLC, 2004.

-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웁김, 서울: 생명의샘, 2023.
- John Stott, 『성령 세례와 충만』, 김현희 웁김, 서울: IVP, 2024.
- John Stott, 『설교』, 박지우 웁김, 서울: IVP, 2020.
- John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웁김, (서울: IVP, 2019), 83-125
- John Stott, 『로마서 강해』, 정옥배 웁김, (서울: IVP, 2020), 505-530.
- Alista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박규태 웁김, 서울: 좋은씨앗, 2005.
- Alistar McGrath, 『기독교 신학의 이해』, 김재진 웁김, 서울: IVP, 2004, 391-395.
- Bacote, Vincent E, 『아브라함 카이퍼의 공공신학과 성령』, 이의현, 정단비 웁김, 서울: SFC, 2019.
- Daniela C. Augustine, 『성령은 어떻게 공동선을 증진하는가?』, 김광남 웁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4.
- David A. deSilva, 『바울 복음의 심장: 개인, 교회, 창조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오광만 웁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9.
- David J. Bosch, 『변혁적 선교』, 김진호 웁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390-392.
- David Buttrick, Homiletic, 『설교학』, 정장복 웁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2-35.
- Gadamer, Hans-Georg, 『진리와 방법』, 임홍배 웁김, 서울: 문학동네, 2012.
- Gordon T. Smith, 『예수의 음성』, 김동주 웁김, 서울: IVP, 2010, 45-52.
-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정인찬 웁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 Heinrich Heppel, 『개혁교의학』, 김재진 웁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534-536.
-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1』, 박태현 웁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웁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Martin Luther, 『의지의 속박』, 김균진 웁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0.
- James K. A. Smith,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홍종락 웁김, 서울: IVP, 2010, 23-26.
-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운용 웁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5-52.
- J. I. Packer, 『성령과 함께 걷기』, 김동주 웁김, 서울: IVP, 2003, 44-47.

- Joel R. Beeke, 『설교에 관하여』, 홍종락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 김종흡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I/9.1: III/1.1.
- John Webster, 『성경: 교의학적 소묘』,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5, 87-90.
- Jaroslav Pelikan, 『기독교 전통 4: 교회와 교리의 개혁 1300-1700』, 김재진 옮김, 서울: 은성, 2003, 120-135.
- Jaroslav Pelikan, 『기독교 전통 4』, 김재진 옮김, 서울: 은성, 2003.
- Jürgen Moltmann, 『희망의 신학』,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16-20.
-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4-68.
- Karl Barth, 『교회교의학 I/1』,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Kevin J. Vanhoozer, 『교리의 드라마』, 김진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88-92.
-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김기철 옮김, 서울: IVP, 2006, 222-225.
- Sinclair B. Ferguson, 『성령』,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00.
- Tim Alberta, 『나라 권력 영광』, 이은진 옮김, 서울: 비아토르, 2023, 80-95.
- Wolfram Kinzig, “Word and Spirit in the History of Doctrin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5 (2004): 1-18.

【 Abstract 】

A Pneumatological Comparison of th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and John Stott

Han, Ji-Hee

(Ph.D. in Theology, Baekseok University Christian Graduate School)

The crisis of preaching in the Korean church stems not from methodological deficiencies but from a structural theological mis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 and Spirit. This study diagnoses this crisis through the hermeneutical categories of *per verbum*, *sine verbo*, and *cum verbo*, offer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eaching models of Martyn Lloyd-Jones and John Stott.

Lloyd-Jones conceives preaching as a Spirit-empowered event, emphasizing its transformative and dynamic character, yet risks individualistic tendencies. In contrast, Stott views preaching as an interpretive act that actualizes Scripture through public responsibility and application, though prone to reductionist explanation.

From the Reformed *cum verbo* perspective, this paper reconstructs preaching as the inseparable unity of Word and Spirit, extending beyond individual transformation to communal formation and cosmic renewal as public witness to God's Kingdom. Situated within the biblical movement of creation, redemption, and new creation, preaching emerges as a theological event bridging individual, church, and world through a cyclical structure of preparation, proclamation, and communal discernment.

Ultimately, this study calls the Korean church toward an integrative pneumatological homiletics embracing personal, communal, and public dimensions, rooted in Trinitarian theology.

Keywords : Homiletics, Martyn Lloyd-Jones, John Stott, Word and Spirit, Integrative Preaching, Public Theology